

“광주·전남 장애인 고독사 막아야” 관리 강화 필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광주 6·전남 4명

실태조사 등 통해 적절한 대책 강구해야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독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부족한 대책이 없어 무연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광주 6명, 전남 4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련기관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사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무연고 사망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지적이다.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0%나 증가한 것이다.

‘고독사’는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2018년에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전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자료에서 10명(2.1%)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사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세종 2명(0.4%), 전남 4명(0.8), 제주·강원·울산·광주 6명(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며, 지체와 뇌병변의 경우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신봉우 기자



‘단풍 절정’ 지리산피아골 삼층소 19일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삼층소 계곡에 붉게 물든 단풍과 하얀 물줄기의 포말이 어우러지며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지금 서남해는 주꾸미 풍년...뉘싯줄마다 ‘만선’

10월 어획량, 지난달보다 2배 이상 늘어...금어기 이후 증가세 뚜렷

지난해부터 실시된 주꾸미 금어기로 인해 올 가을철 서남해 바다에서는 주꾸미 풍년을 이루고 있다.

20일 목포수협 등에 따르면 봄·가을철 주로 잡히는 주꾸미는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금어기가 끝난 9월부터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다. 뉘싯줄을 던지자마자 덩실 무는 주꾸미로 인해 어선들은 예년보다 짧은 조업시간으로 가득 실은 주꾸미를 위판장으로 실어나르고 있다.

목포수협 활어위판장의 위판량을 살펴보면 금어기 직후인 지난 9월에는 1502kg이 위판돼 모두 1490만5240원의 위판액을 올렸다.

10월 들어서는 지난 15일 기준 2762kg의 주꾸미가 들어와 3768만6300원을 위판액을 기록했다. 보름 만에 지난달 위판량을 훌쩍 넘어섰다.

일일 위판량은 날씨와 조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하루 최대 500kg을 기록할 정도로 주꾸미 위판량이 늘고 있다.

가격대는 중품이 kg당 1만2000~3000원,

상품은 kg당 1만5000~6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추세면 지난해 10월 위판량인 4722kg과 위판액 7482만2450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까지 주꾸미 풍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주꾸미 풍년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금어기 효과가 풀이된다.

금어기 실시 전인 2017년 목포수협 주꾸미 위판량은 총 1만3054kg에 위판액은 1억 7815만632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어기 도입 이후인 2018년에는 2만2318kg의 위판량과 4억542만4090원의 위판액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1만7000여 kg의 위판량과 3억6000여 만원의 위판액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위판량과 위판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금어기 실시 이후 주꾸미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당분간 주꾸미 위판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례군, 대표 음식 개발 박차

버섯·쏘가리 등 구례 특산물 활용한 대표 음식 시연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17일 구례여성문화회관에서 현재 개발 중인 구례군 대표 음식의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례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례 대표 음식은 노고할매밥상(가칭)이다. 구례 특산물인 자연산 버섯, 은어, 쏘가리, 우리밀을 활용한 메뉴다.

시연회에 참석한 한 영업주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여 새로 개발한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특별하다”며 호평했다. 더불어 “오이, 버섯 등을 활용한 색다른 밑반찬도 좋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대표음식을 활용할 의지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노고할매밥상’



의 표준 조리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대표 음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은 22일 대표음식 한상차림 세팅법과 만능소스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며 24일에는 완성된 ‘노고할매밥상’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첫째날 : 청년뮤지션 공연, 개막행사 (청년도시 선포식)
가을밤의 힐링 휴 콘서트(휘성,몽니,신현희,신지 등 공연)

둘째날 : 명사초청강연 (조승연 작가), 2019 무안 일자리 박람회
영드림 (Young Dream) 콘서트(벤, 데이브레이크,진조크루)

셋째날 : 명사초청가연 (성악가 임형주)
청춘가요제 (거미,닐로 등 공연) 불꽃쇼

2019. 10. 25. 금 ~ 10. 27. 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중앙공원 일원

주최 주관 무안군